

아시아, 「농업경시」가 쌀 위기의 원인

「식량안전보장과 식량주권이 위협 받고 있다고 5년간 계속 호소해왔지만 각국 정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쌀 위기가 도래하는 것도 시간문제.

이와 같이 호소하고 있는 사람은 아시아의 농촌지역과 오랜 세월 협력해온 국제환경단체 「농약행동네트워크」(PAN, Pesticide Action Network)의 크레아 웨스트우드씨이다.

PAN의 아시아 태평양 사무소는 장기간에 걸쳐서, 다가오는 쌀 부족에 대하여 경종을 울려왔다. 하지만 세계의 곡물생산국 상위 10개국 중 9개 국가를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지역 각국 정부는 이 경고를 무시해왔다.

PAN이 가장 염려하는 문제는 대량의 비료와 농약의 투여가 필요한 다수확 품종이 수요증대에 대처하는 답이라고 해서, 단일작물을 추진하는 공업적인 규모의 벼농사의 진흥이다. 그 결과 남겨지는 것은 몇 세기에 걸쳐 현지의 지식을 활용하여 그 토지의 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품종의 벼를 재배하여온 소규모 농가이다.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도 아시아 각국 정부의 농업부문 경시의 계산서가 이번에는

오고 있다는 PAN의 견해가 지지를 받았다.

ESCAP의 빈곤개발부 사회경제과장 Shamika Sirimanne씨는 1980년대에 농업부문에 공적지원의 후퇴가 시작된 것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80년대 누구나 경제 성장을 생각한다면 맨 먼저 제조, 공업, 서비스 부문의 성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농업에 의해 성장한다는 생각은 주류에서 벗어났다. 지금 아시아의 농업부문은 극빈층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농업으로 재투자를 개시하는 것이 각국 정부의 의무이다.

유엔 후원의 「개발을 위한 농업과학기술국제평가 (IAASTD)」도 4월 중순 요하네스 버그 회의에서

세계 각국 400명의 전문가가 집필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곡물생산개선을 위해 「전통적인 농법 그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이라고 해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소규모적 농촌의 부활을 강하게 호소했다.

IAASTD의 보고서는 또한 국제미작연구소(IRRI)가 중심이 되어 1968-81년에 다수확품종에 의한 쌀의 생산량 증가를 추진하여온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의 사회적 및 환경적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Y

